

중소기업 지원정책 마련에 머리 맞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서울지방조달청장과 애로 해소 위한 공공구매 활성화 정책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서울 중소기업회장 김남수)는 4일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서울지방조달청장과 공공구매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성민 서울지방조달청장, 이호주 자재구매과장, 김남수 서울 중소기업회장, 김화만 서울경인 가구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현재 민간부문에서는 수요동력 상실에 따른 내수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조달시장의 더 많은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관련 중소기업 지원정책 또한 현 여건에 부합되도록 완화 또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 중소기업계는

▲조합 추천 수의계약 구매대행 재시행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국정교과서 발행 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입찰 및 조달요청 등 10건의 정책을 건의했다.

강성민 서울지방조달청장은 "누구보다 중소기업의 현 어려움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며,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하여 신성장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수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회장은 "경기침체와 대내외적 부정적 요인으로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공구매 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에 조달청의 많은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가 4일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서울지방조달청장과 공공구매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NH농협순해보험, '무배당 리치팜생활안심보험' 출시

NH농협순해보험 전북총국(총국장 강희상) 유남영 정읍농협 조합장이 '무배당 리치팜생활안심보험' 출시를 기념하여 전북 1호로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무배당 리치팜생활안심보험은'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에 대한 보장'을 기본계약으로 하며, 만기까지 보험료 인상 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16개 비갱신형 특약과 농업인을 위한 4개 갱신형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갱신형 특약은 농작업 중 발생가능한 사고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

이 상품의 해당 특약에 가입하면 고객은 골절진단, 화재손해, 도난손해 보장 및 80%미만의 일반상해후유장애에 대해 반복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재배상책임,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농작업중배상책임과 같은 법률상의 배상책임까지 보장 받고,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기계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사고로 발생한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애(80%이상)에 대해 생활자금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상품은 농업인을 위한 '농업든든 플랜' 뿐만 아니라 비농업인을 위한 '생활든든 플랜'도 마련되어 있어 보이스피싱 손해,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 비용 등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만 19세 이상에서 80세까지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선택 가능 하며, 갱신형 특약의 경우 3년 주기로 갱신되고, 최저보험료는 월납 기준 2만원으로 부담이 없는 수준이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 '이달의 우수 농협인상' 시상식 가져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4일 지역본부 정례대회에서 우수 조합장 부문에 철보농협 권혁민 조합장을, 우수 직원 부문에 고창농협 정종진 본부장과 새물농협 김경신 과장을 각각 '이달의 우수농협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권혁민 조합장은 탁월한 경영관리와 다양한 사업발굴을 통해 농가소득증

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 조합장'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2011년도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으로 편입된 철보농협은 2015년에 선출된 권혁민 조합장을 중심으로 전 임직원 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2014년말 대비 총자산과 순자본 비율이 각각 346억원과 1.39%p가 증가된 실적에 힘입어 작년 4월 경영정상화를 이뤄냈다.

평소 권혁민 조합장은 "농협은 죽어도 농민과 함께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농촌의 일손부족 해결, 농업경영비 절감,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농촌의 지킴이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또한, 고창농협의 정종진 본부장과 새물농협 김경신 과장대리는 영농우대 특별 저리대출을 통해 적극적인 상호금융사업 추진으로 농업인 실익 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 직원'에 선정됐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경진원, 한국국제가구·인테리어산업대전 참가

전라북도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9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에 스타디자이너(유) 등 12개사와 함께 박람회 참가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은 30회를 맞이한 국내 최대 규모

의 가구산업 전시회로서, 올해에는 국내·외 380여 업체가 1948개 부스 규모로 참여했다. 국내 제품 전시 이외에도 터키,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 해외의 18개국 120개사의 이색적인 가구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국제 가구전시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주한지로 만든

'자연나무등'을 비롯한 인테리어 소품과 사무용·학생용 가구, 식물 벽면녹화제품 등 다양한 가구를 선보였다. 특히 도내 제품에 대한 국내외 바이어의 관심이 높아 843건의 제품판매 상담을 진행했다.

전북도와 경진원은 가구시장의 신규 바이어 발굴 및 바이어와 연계강화를 통한 우리 도내제품의 판로개척 활성화를 위해 이번 박람회 참가지원을 기획했다.

/김윤상 기자

는 식재료가 어떤 과정으로 납품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aT에 공급사로 등록하기까지 상당히 간단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마음이 놓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장점검 외에 불공정행위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시점검도 병행된다. 불시점검은 필요에 따라 각 지역 교육청, 식약처, 지자체, 농관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함으로써 aT의 불성실업체 감시활동뿐 아니라, 식품안전 감독기관의 감시활동도 함께 이루어진다.

/김윤상 기자

aT, 학교급식 공급업체 일제정비 나선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aT) 등록 2년이 경과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학부모가 참여하는 하반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상반기와 같이 aT 급식관리단 27명과 각 지역교육청 추천 및 업체점검을 지원한 학부모 71명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aT 등록 이후

변경사항 확인 ▲창고 및 작업장 환경 및 청결상태 ▲냉장 및 냉동시설 적정온도 유지 확인 ▲배송차량 온도 기록 장치 점검 등이다. HACCP 인증업체는 위생관리지침 이행여부도 추가로 점검하며, 미흡한 사항이 나타날 경우 점검 현장에서 바로 지적하여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상반기 경북 구미 지역 현장점검에 참가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먹

는 식재료가 어떤 과정으로 납품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aT에 공급사로 등록하기까지 상당히 간단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마음이 놓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장점검 외에 불공정행위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시점검도 병행된다. 불시점검은 필요에 따라 각 지역 교육청, 식약처, 지자체, 농관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함으로써 aT의 불성실업체 감시활동뿐 아니라, 식품안전 감독기관의 감시활동도 함께 이루어진다.

/김윤상 기자

'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사전선발 모집 미창업자 또는 2년 미만의 초기창업자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북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0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사전선발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창업준비팀과 초기창업팀, 재도전창업팀 대상으로 사회적 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진원은 올해 40개 팀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번 2020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사전선발은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미창업자 또는 2년 미만의 초기창업자(2018년 1월 1일 기준)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 선정된 사전선발 창업팀은 이후 본 선발 창업팀과 함께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사업개발비를 차등 지원받는다.

또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상시 전담인력 배치로 창업팀들의 법인설립 단계부터 판로·마케팅 등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인큐베이팅 공간을 제공한다.

경진원 관계자는 "올해뿐만 아니라 2020년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육성과 판로지원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전선발 모집 신청은 오는 20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진원 홈페이지(www.jtba.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국내경제 부진... 중소기업 혁신 절실"

전북중기청, 지원협의회 개최 현안·이슈·지원정책 공유 정책만족도 제고 위한 노력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 이하 전북중기청)은 4일 오후 중회의실에서 전북중기청장을 비롯한 28개의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유관된 지원기관 및 협·단체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4회 전북 중소기업 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지원협의회는 매월 첫째주 수요일 전북중기청에 모여 참석시간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추진계획 등 지원정책과 현안·이슈를 공유하고, 협·단체의 애로·건의사항 해소와 규제 개선을 모색하며, 협업과제 발굴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지역내 대표적인 중소기업 정책소통기구이다.

이날 자리에는 먼저 글로벌청년벤처협회 소속 회원사(청년기업)인 '라라스팜'의 황인진 대표가 애로사항 건의 및 지원관심을 요청하였으며, 전북중기청은 경제동향 설명을 시작으로 소관팀별(조정평가, 성장지원, 창업벤처, 소상공인) 주요 업무를 소개했다.

특히, 중점 추진정책과 관련 ▲일본 수출규제 확대 대응방안 및 피해기업 애로신고센터 설치·운영 ▲제로페이 가맹·이용 활성화 ▲스마트공장 시

군별 사업설명회 및 매칭데이 ▲추석 맞이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등을 안내하고, 지원기관 및 협·단체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그리고, 각 지원기관 및 협·단체장들도 지난달 추진실적과 9월 중 추진계획을 안내하고 공유하여 폭 넓은 홍보가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애로·건의사항을 제언하여 해소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전북중기청은 협의회 후 주요내용을 지원기관과 협·단체에 E-mail 등으로 송부해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소통을 극대화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원기관과 협·단체 기관장들은 지역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상호간의 폭 넓은 이해뿐만 아니라, 같은 방향성을 갖고 합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유익한 소통의 자리였다고 전했다.

전북중기청 김광재 청장은 "국내경제의 부진 국면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혁신이 보다 절실해진 가운데, 속도감 있는 혁신의 붐을 위해서는 우리청과 지원기관 및 협·단체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오늘의 자리를 통한 협력체계의 힘이 하 나로 모여져 새로운 시너지 효과와 정책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